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2002 사명자 대회 시작된다

10월6일(주)부터 11월24일(주) 까지 50일간

우리 서울교회는 11년 전 교회를 설립하기 전 온 성도들이 수많은 고통의 시험을 감내하며 연단의 길을 좇아 50일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쉬임 없이 기도의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키 위해 1991년 11월 24일 마침내 교회의 간판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울 교회를 출범케 되었다. 그 후 11년 동안 매년 교회는 이때 받은 첫 사랑의 감격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교회 설립 기념주일부터 50일간을 역산하여 사명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금년 사명자 대회는 교회의 부흥과 민족과 국가를 위해 그리고 헌당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 금년도 주제 찬송가처럼 익은 곡식은 도처에 널려 있는데 거둘 자

가 없어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올바로 듣고 바로 내 자신이 그 사명을 받았음을 깨달아 내가 먼저 변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일치와 증거가 드러나도록 기도한다.

또한 사명자 대회 기간 중에는 50일간 매일 24시간 성도들이 연속으로 끊임없이 기도 드리는 50일 연속기도와 매일 오전 10시와 저녁 10시에 각 각 2분간 전교인이 동시에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열열이 기도)와 주권부서를 선정하여 드리는 금요 철야기도회, 70인 전도대 축호전도, 태신자 기도 등의 개인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도활동이 전개된다. 이번 사명자대회 주제 및 표어, 주제 찬송은 다음과 같다.

< 2002 사명자대회 >

- † 주제 : 이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게 하소서(골4:3)
- † 표어 : 기도로 세운 성전, 헌당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자
- † 기간 : 2002. 10. 6(주)~11. 24(주) 50일간
- † 사명자 새벽 기도회 : 11.11(월)~23(토) 새벽 5:00~6:00 강사: 이중윤 목사
- † 주제 찬송 : 271장 '익은 곡식 거둘자'

대통령 후보 3인 우리교회 온다

-목회자 신학세미나에서 강연-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제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올해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회창(한나라당), 노무현(민주당), 정몽준(무소속) 세 의원이 강사로 초청된다. 신앙과 애국이라는 주제하에 이들은 각각 60분씩 강연을 하고 3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국교회 현안문제를 나라의 지도자가 될 분들에게 질의 형식을 통해 교회가 원하는 방안을 풀기위한 이번 강연회는 10월7일(오후 2시) 정몽준 의원, 10월14일(오후 2시) 노무현 의원, 10월14일(오후 3시 50분) 이회창 의원 순으로 이어진다.

5년전에도 김대중, 김종필, 이회창, 이인제, 조순 등 당시 대선후보들이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되어 당시 기독교 교도소 설립 추진 이사장이었던 이중윤 목사의 제의로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위한 법제화에 까지 이르는 열매를 맺은바 있다.

이번 강연회에는 목회자 세미나 등록자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공개된다. 한국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주여, 우리로 전도하게 하소서!

-남선교회 · 여전도회 전회원 수련회 열린다-

전도위원회에서는 10월 1일(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101호(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전회원 일일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는 사명자 대회를 앞두고 전도자로서의 고귀한 삶을 회복하고, 전도를 위한 기도와 기도한대로 전도하는 능력을 받아 전도의 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6시부터 50분간 각 전도회, 선교회별 식탁교제를 가진 후(만나홀) 찬양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강남노회 총성교회 담임목사인 윤여풍 목사의 전도 특강에 이어 교구마 전도왕으로 널리 알려진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의 전도 간증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할 예정이다. 전도위원회에서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 연주회 참여한다

우리교회는 오는 12월10일(화)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02 메시아 연주회에 우리교회 찬양대원들을 참여키로 했다. 이번 연주회는 20개 교회의 연합 찬양대원 450명으로 구성되는데 우리교회도 연합찬양대에 참여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한 연습은 10월12일(토)부터 12월10일(화)까지이며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함께 협연하게 된다. 자세한 연습일정 및 장소 문의와 신청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50일 연속 기도회 갖는다

50일간 매일 24시간 릴레이 기도

사명자 대회 기간중 50일간 매일 24시간을 기도하는 연속 기도회를 갖는다. 릴레이로 계속되는 이 기도회는 말은 시간에 기도하게 되는 성도가 먼저 성경을 책임 분량 만큼 읽고 난 후 기도제목과 갖고 기도하면 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연속 기도회에 참여하여 스스로 한 장의 벽돌이 되어 교회를 세우자. 이번 50일 연속 기도회를 위한 기도실은 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 마련되며 전면 에 공동 기도제목과 성구를 부착하여 연속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게 된다. 연속 기도회 참여 신청은 1층에 마련된 신청서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적어내면 된다. 또한 50일 연속 기도회와 병행하여 다니엘 기도도 드리게 되는데 이 기도는 모든 성도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각 2회 2분간 잠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카드에 씌어진 같은 기도제목으로 열렬히 기도하게 된다.

2002 이웃 돕기 및 헌당을 위한 열린바자

10월 9일(수) - 10월11일(금) 3일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열리는 바자준비가 한창이다. 각교구에서는 교구장과 지도 목사의 지도아래 교구별 연합 모임을 통하여 판매할 물품과 판매전략을 세우며 일심단결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바자 물품은 각 교구별로 104호실에서 접수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바자 시간은 9일(수): 12:00 - 20:00, 10일(목): 10:00 - 20:00, 11일(금): 10:00 - 20:00 까지 이다.

† 태신자 †

강수연 김명우 김종만 김철우 안성모 이혜숙 임길순 정상진 정연옥 정원석 조기근 황규협 (이상12명) 다음 호에 계속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호세아 2장 2 - 23절)



이중운 목사

세상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우상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 고멜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때 호세아는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합니다. 호세아의 마음을 찢어졌습니다. 호세아는 단지 배신한 아내로 인한 절망감에서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한 남자의 아내이며 세 자녀의 어머니임을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제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슬픔이었고 곧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대립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은 불성실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가르칩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나간 여자보다 더 악하여 영적인 창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극을 사랑의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1. 고멜의 비극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5절).

고멜의 겉모습은 아름다웠는지 모르나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천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이끌리어 보이지 않는 영원을 상실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특하고 거짓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꾸고자 하는 유혹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쾌락 뿐 아니라 물질의 유혹을 따라 세상으로 갔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고귀한 것인 줄 알았다면 고멜은 남편을 떠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7절).

남편을 떠난 고멜이 처음에는 이런 저런 것들을 얻으며 기쁨을 누리는 듯 했지만 그녀에게는 점차로 좌절과 낙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남편을 생각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8절).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인간이 주었다고 인간을 쫓아갔다가 이것을 모두 빼앗겨 불쌍한 형편에 처했을 때 깨달았지만 그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유병을 잃어버린 갓난 아기가 찾아야 할 것은 우유병이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를 찾으면 우유병 뿐만 아니라 엄마의 사랑까지 받을 터인데 우리는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만 찾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되 어떤 이유로도 구별되지 아니하는 사랑 자체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성취에 빠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6절).

고멜은 떡과 물과 양털과 술을 쫓아갔지만 호세아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가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고멜의 길을 하나님은 가시, 곧 고난을 주어서라도 그 길을 막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에는 '그러므로'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6, 9, 14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은 '그러므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고 하십니다(6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접근하는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를 치실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더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9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공평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후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멜은 자기의 가진 것으로 열락을 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고멜의 가진 것을 모두 빼앗으셨습니다.

2. 소망의 문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15절).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 범적하므로 민족 전체가 고통 당할 때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죽여 묻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있는 그곳에 소망의 문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소 떼가 눕는 곳이 되어"(사 65:10),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푸른 초장을 만드시어 복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떠난 자들을 가지 울타리로 막아보시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도 하시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세워주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16-17절).

세상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우상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18절).

하나님께서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없어지고 땅의 모든 들짐승과 더불어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활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의 알리라"(19-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 들어 우리를 보호하고 진실되게 약속을 지키시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활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활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22-23절).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큰 아들로 그의 이름은 '저주를 받아 흠어진다'는 뜻과 '심는다'의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저주를 받아 흠어졌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활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 로루하마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활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곧 로마미이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자 언약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쌍방 언약이 아닌 일방 언약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 언약을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암미라 하실 것이고 이 땅에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2사명자 대회 공동 기도문

역사의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치 못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 믿음의 기도와 눈물로 세운 서울교회 새 예배당
 정성과 뼈를 깎는 헌신으로 헌당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학생 일 만명을 주시옵고 다락방마다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 있게 하옵시며
 전도회와 선교회가 스테판과 바울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어
 서울교회에 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화목한 가정, 보람된 일터,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이 삶 속에 용해되어 새 사람을 변화 받아
 정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나라,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이룩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시생을 위한 기도회

오광원 집사(고등부 부장)



우리 교회의 고 3 기도 결연회는 고 3학생들의 현실과 고민이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해답을 얻어가도록 온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후원하는 모임이다. 고 3 학생 1명당 교역자, 교사는 물론이고 장로, 권사, 집사, 선후배 등 8명이 결연을 맺어 1년 동안 그의 건강과, 신앙과, 비전을 위해 기도한다.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일찍잡치 자신의 영역에서 경험을 쌓고자 취업을 택하는 학생들 모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많은 손길들과 함께 고 3생활의 짐을

나뉘 들고 감사함으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안에서 1년 후 그들이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되면서, 과정에서는 작은 갈등과 초조함, 두려움들도 그들을 향해 열려있는 기도의 끈들로 평안을 얻게 된다.

이번에 고등부에서는 수능시험(11월 6일)이 한 달여 남은 10월 첫째 주(10월 6일)에 모든 고 3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기도 결연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합기도회를 갖게 된

다. 마지막 한 달 동안, 구별된 신앙의 자녀들이 건강과 지혜에 있어 충만하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각 결연자 별로 모여 기도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을 향해 마련해 놓으신 미래를, 격려와 사랑 속에 담대함으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계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와 "예수 믿으세요?"

김주연 (청년부)

지난 주 토요일, 대학부와 청년부가 함께한 "노방전도"에 나섰다. 기왕이면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이규정 목사님의 전도특강에서 배운 내용대로 실천하고자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전도대상자에게 다가가서 그와 깊은 대화를 하고 또 이성에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전도전략을 따르기로 했다.

2명이 한 조가 되어 전도에 나선지 불과 30분도 안 돼 나는 평서문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와 의문문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

지를 주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혹은, "교회 다니세요!" 라고 전도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의문문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전도를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 남학생들이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기 위해 "교회 다니세요? 전도하려 나왔습니다"라고 말한 후, 전도대상자의 눈 높이에 맞추어 대화를 진행해 나갔다. 우리가 만난 그 학생들은 이성친구 혹은 그 또래들만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들의 눈망울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느꼈다. 헤어질 시간은 생각보다 금방 다가와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원 가는 길이기에 아쉬움으로 그들을 보냈다.

이번 노방전도는 실질적인 전도를 하고 싶었던 나에게 주님의 은혜로 노방전도 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성경통독을 마치며



박현주(청년부)

할렐루야~!

성경통독을 마치며, 문자적으로 읽고 느낀 것 이상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1독 이상을 마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된 몇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늘 읽어야 할 성경말씀을 읽는데 동기가 있었어야 할까 싶지만 분명, 그 동기로 인하여 1독을 마쳤고 또 다시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관심이 가거나 이해가 쉬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읽다보니 성경전체의 자연스런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깊은 감동과 말씀을 통한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두 나라(몽골, 일본)로의 해외단기 선교를 앞두고 꼭 성경통독을 마치고 떠나야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5월1일에 시작하여 9월11일에 끝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느낀 점과 받은 은혜들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먼저는 제 개인적인 습관으로 크게 감동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을 반드시 줄을 쳐두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설교시간에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정해진 시간 안에 1독을 마쳐야겠다는 결심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고 집중이 안되어도 한 구절이라도 꼭 펼쳐보다 보니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감사한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전에 외출 시에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면 뭔가 허전해서 귀가를 서두르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인가부터 성경책을 나누고 외출하면 뭔가 허전해서 귀가를 서두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는 휴대폰이 아닌, 펼쳐보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는 성경책이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책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읽어 가는 중에 받은 은혜는 무엇보다 기도와 아침묵상의 깊이입니다. 읽은 말씀의 내용 때로는 영상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가득 차서 기도 중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다보면 당연히 기도내용이 풍성하여지고 기도의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성경말씀의 어느 부분에서라도 잠잠한 묵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기쁨은 성경1독을 마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서는 너무도 값지고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1년에 1독 이상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까 기대해보며 올해 안에 다시 한번의 통독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활기찬 열린 프로그램

성도와 지역주민을 위해 우리 교회가 개설한 "열린 프로그램"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열린 프로그램은 성도들에게 성경말씀과 다양한 교양을 쌓게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찬 여가시간과 복음을 만날 기회를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설됐다. 특히 새 예배당 입당 이후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교회로 다가가기 위해 주부대학과 살롬 경로대학 등을 중심으로 실속 있는 '정보강의'를 마련하면서 그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참여 인원이 지난 봄 학기 보다 50%가량 늘어난 것도 이를 반영한다.

- 지난해부터 여 성도들과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주부대학은 그 동안 3학기를 운영했다. 자녀교육과 자기개발, 가족건강, 생활법률 상식 등이 주요 강의다. 강의가 끝난 뒤엔 영어회화교실과 컴퓨터, 고전음악감상, 요리강습 등 특별 특별활동도 운영한다. 이번 제4학기에는

홍순복 사모(미생물학 박사)의 비만문제와 체질량 지수 측정법 소개와 이현숙 집사의 가족관계 진단과 가족치료, 조해경 박사(명지대 강사)의 청소년 비행 문제와 대책, 김시환 집사의 주부 인터넷 교실 등을 강의했다. 앞으로도 이완형 장로와 이은옥 권사는 각각 "자연과 수석", "아동의 정신건강"이란 제목으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또 나미용 집사는 성인병의 원인과 이에 대한 영양관리법을 두 주에 걸쳐 소개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주부대학은 일반 주부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앞으로도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우리교회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살롬 경로 대학을 설치하고 1년에 두 번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제5학기에는 무엇보다 건강에 관한 강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치매와 치료레크리에이션, 한방, 건강체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수업으로 노년기 건강관리법을 중점 학습하고 있다. 또 생활원예를 배우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가꾸는 법도 습득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독교 유적지순례, 한국교회사와 신앙

간중 등 알찬 순서가 많이 남아 있다. 특별활동 시간에는 성경과 컴퓨터, 에어로빅, 종이 접기 등 각자 취미에 따른 별도의 분야에서 교양을 쌓고 있다. 인생의 황혼기에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롬 경로대학은 노년기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학기를 거듭할수록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열린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참가자를 자랑하는 서울 성경대학은 신규약 성경을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려는 성도들을 위해 지난 1997년에 개설되어 그 동안 참가자가 연인원으로 무려 2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12학기는 잠언과 사무엘서, 테살로니가서, 마태복음 과정으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음악교실과 교사양성반, 전도학교, 각 교구에서 청지기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한 교구일꾼양성반 등도 열린 프로그램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말씀과 헌신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이 성경대학을 통해 큰 영적 공급을 받고 있는 만큼 더욱 많은 참여와 호응이 기대된다.

김민철(편집부)

생명의 보고 - 서점

가을 하늘은 점점 높아져 우리의 눈이 시리도록 맑고 파래지고 있다. 찬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스칠 때 우리는 바쁜 손길을 잠시 멈추고 생각한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주안에서 더욱더 행복해지고 싶다고 영적인 빈 들녘에 앉아 당신의 시간 속으로 뛰어든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이 가을에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서울교회 서점을 찾았다. 서울교회 정문을 들어서면 왼편 로비 쪽으로 환히 보이는 아담한 서울 서원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작은 방은 복음의 소리로 우리를 환호하고 있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며 영적으로 배불러 지는 것 같은 많은 책들. 그분에 대해 알고 싶고 더욱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과 아니면 기독교를 왜곡시키며 예수를 신화나 전설적인 인물로 세상에 잘못 알리는 이들을 위해 바른 이해와 복음을 전파하는 서울 서점의 일들은 광범위하다.

눈으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서적들 거의 다가 이중운 목사님 저서이다. 39편의 주옥같은 말씀의 서적들이다. 창세기 강해서부터 성경의 진수인 로마서 강해와 요한복음 강해, 신문 칼럼을 정리한 순례자의 길, 급변하는 사회의 목회 갱신 등등 많은 서적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생명을 외치고 있다.

서적뿐만 아니라 주일 대예배 1년 설교를 정리하여 제작한 케이스별 테이프도 판매하고 있다. 강해 설교부터 목회자 세미나 5학기에서 21학기 특강까지 테이프로 제작되어 다 갖추어져 있다. 월요일마다 전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도 설교 테이프와 이중운 목사님의 여러 서적들을 많이 구입해 가신다.

서점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모든 테이블을 녹음 편집하며 판매하는 일, 국내외로 우편 발송하는 일 등 앞으로는 북한선교에까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생명의 보고! 서울 서점 담당 정형숙 권사는 늘 겸손하시며 조용하지만 세계곳곳에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구촌적인 서점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평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 오전) 판매하며 주일은 현금함에 대금을 넣고 보급을 끊이지 않고 있다. 혼자서 작업하기 힘들어 고정적으로 봉사자들의 손길이 끊임없이 서점을 돕고 있다. 그 손길들에 늘 감사한다는 정권 사님의 특별한 부탁이었다.

서울교회 성도에서부터 이웃, 해외 친지들, 선교사, 믿지 않는 가족, 태신자들의 선물로도 전도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개역개정판 성경과 찬송가도 구입할 수 있으며 각종 신앙서적과 테이프를 전화 주문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 가을에 우리도 한번씩 읽어야 하며 읽지 못하는 분들은 테이프로도 제작되었으니 믿음의 성장에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갖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서선교에 앞장서 가는 서울 서점! 작지만 일찬 복음의 사역지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울 서점이 되기를 기도한다.

신동기(편집부)



동정

■ 동정: 김영한 목사는 10월28일-29일 제12회 기독교 문화 및 신학세미나를 숭실대 과학관에서 개최한다.

■ 기증: 박소임 전도사 참기름 4리터 기증
이순화 전도사 (양평교회) 고추 기증
김혜련 집사, 조원섭 집사(11교구)
국화꽃 화분 9개 기증

■ 이사:
· 최용걸 집사 최일춘 권사(3교구)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865-10 보성빌라 2-203 031-988-9591
· 황정아 집사(3교구) 대치동 933-17 302호 562-8274
· 이승준 집사 최문주 집사(4교구)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 apt 101-2102 591-4143

<이·미용 선교회 모집>

전도위원회에서는 이·미용 선교회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 전도사역에 힘쓰고자하는 성도의 많은 참여바란다.
원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다.

◎ 금주의 식사제공: 황정옥 집사, 주경자 권사 가정 (모친 장례를 마치고)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2. 서울성경대학·주부대학·살롬경로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아시아인 게임과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로로 5분거리